

농촌 인력난 해소...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나선다

인력전담기관 지정 건의...숙소 확충·의료비·통역도우미 지원 등 계절근로제 10개소로 확대...노동권익센터와 고용주 교육 강화도

전남도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소를 확충하고, 언어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6일 "지난 1월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과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관리·인권침해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를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

(10개소)에 도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어울리도록 언어소통 도우미도 시·군별로 배치한다.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농업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2025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3월까지 인권, 노동법 등

교육을 하고, 미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 시·군을 통해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이체 하도록 계약하고 입국해 계절근로자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 되도록 한 사례 59건을 밝혀냈다. 이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과 유사한 경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재발급 조치하고, 임금 미지급 6건에

대해 즉시 입금하도록 조치했다. 현지 작업반장 등 제3자가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24건이 있었으나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재발급도록 조치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원활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족처럼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근로여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2024년 상반기 예정된 농업 계절근로자는 5818명으로 2023년 상반기(2274명)보다 2.6배가 늘었으며, 상반기 배정받은 인원은 올해 4월 농번기에 맞춰 본격 입학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여성의 날... '성평등 실현' 기원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4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전남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성평등 실현'을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여수산단 개소

화학공정 촉매 제조 기반·기업 맞춤형 촉매 기술 지원체계 마련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미래혁신지구에서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는 2단계로 구축된다. 이번엔 준공된 1단계는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283억원(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부지 9960㎡, 연면적 2502㎡(연구지원동·실증실험동 등 2개동) 규모로 구축됐다.

여수광양권을 중심으로 탄소중립형 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중립형 석유화학 공정용 촉매 생산 실증 장비를 구축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촉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험·평가, 실증 등을 지원해 전남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저탄소·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2단계는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실증을 위한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실증센터 구축사업이다. 2022년부터 총사업비 280억원(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1107㎡에 연면적 2200㎡(기술실증동·기술지원동 등 2개 동)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1, 2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화학연구원 전남센터 13명)를 지역 조직으로 유지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2030년까지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는 탄소중립형 석유화학 공정 개발에 필수적인 촉매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전남 탄소중립 화학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인중개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연중 실시

12월 말까지 3848곳 대상...전세사기 예방 단속반도 운영

광주시는 "건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소 3848개소이다.

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04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6건, 과태

료 부과 222건, 자격취소 2건, 경고시정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송희중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2~3년간 부동산 매매건수 급감으로 인한 중개업소의 어려움을 살피는 한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 발생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단독 추천' 박기영 순천대 교수 전남연구원장 추천안 부결

재공모 추진...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

전남연구원(JNI)의 초대 원장으로 추천된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전남연구원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연구원은 조만간 재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인물난 등으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6일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 후보자로 단독 추천된 박기영 순천대 의생명과학과 교수에 대한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앞서, 연구원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원장 공모에 응한 3명의 후보자 중 박 교수를 단독

추천했다.

연구원 원장 공모 및 선임규정의 '각 심사위원 합계 점수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 안팎에서는 지난 2004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 공문서자로 이름을 올린 박 교수의 전격 등이 거론되는가 하면, 제한된 연구 이력 등으로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전남연구원 수장 역할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나왔다. 광주와 분리된 이후 초대 원장이라는 상징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